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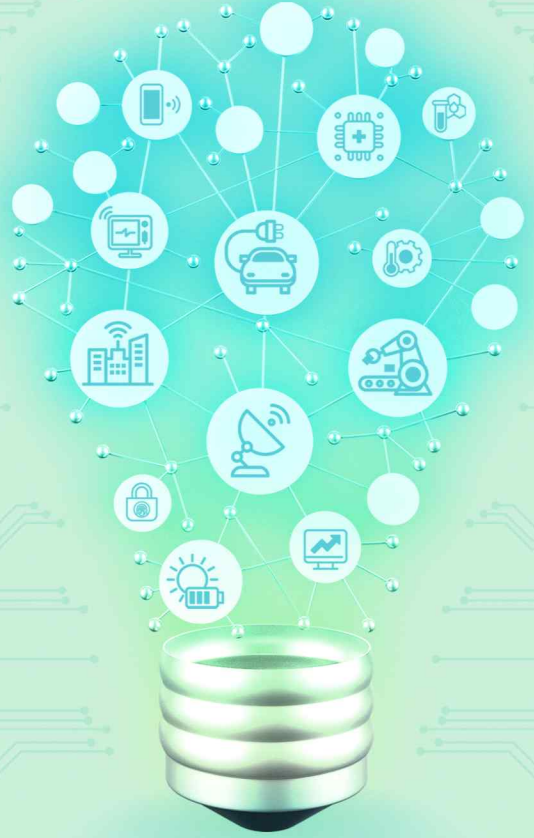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올릭스(226950)

기타서비스

요약
기업현황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NICE평가정보(주)

작성자

문정호 전문연구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 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 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4-682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IR협회

올릭스(226950)

자체 개발 RNA간섭 플랫폼 원천기술 기반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 전문기업

기업정보(2021/09/30 기준)

대표자	이동기
설립일자	2010년 02월 26일
상장일자	2018년 07월 18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주요제품	siRNA 시약 및 핵산치료제

■ RNA간섭 기술 활용 차세대 신약개발 기술 구축

올릭스(이하 동사)는 저분자화합물(1세대) 및 항체(2세대) 신약 개발기술을 뛰어넘는 올리고 핵산(3세대) 기술을 구축 중이다. 특히, RNA간섭 기술을 이용하여 그간 공략이 불가능하였던 질병에 대한 신약 후보물질을 도출하여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기존 대칭구조 형태로 개발된 siRNA보다 짧은 이중가닥 길이와 비대칭 구조를 가진 siRNA를 고안하여 차세대 신약 개발 플랫폼 기술로 확보하였다.

■ 자체 확보한 플랫폼 기술 활용 난치성 질환 파이프라인 확보

동사는 자체적으로 cp-asiRNA 플랫폼 기술을 구축하였다. 이 기술은 기존 siRNA 기술 대비 세포 내 전달 이슈를 극복한 국소 투여 치료제 개발기술이다. 효율적인 표적 유전자 억제 효과를 보이며, 이중가닥 염기서열만 변경하여 다양한 유전자를 표적할 수 있어 적응증 확장성이 높은 기술로 파악된다. 이를 기반으로 동사는 피부, 안과, 폐 질환 등 총 13개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진행 중인 주요 파이프라인은 비대흉터치료제(OLX101A), 탈모치료제(OLX104C), 건성 및 습성 황반변성치료제(OLX301A), 망막하 섬유화증 및 습성 황반변성치료제(OLX301D), B형간염치료제(OLX703A) 등이 있다. 현재 국소투여 치료제를 넘어, 전신투여를 통한 치료가 가능한 기술로 확장개발하고 있어 신규 파이프라인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자회사 엠큐렉스 설립으로 핵심역량 강화

동사는 2021년 1월 mRNA 관련 신약을 중점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전문기업인 자회사 엠큐렉스를 설립하였다. 이는 mRNA 약물분야까지 개발분야를 확장하는 한편, RNA 간섭 기술을 활용한 핵산치료제 기반 차세대 플랫폼 기술에 집중하여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파악된다. 한편, 동사의 또 다른 자회사 OliX US는 핵산치료제 합성 및 분석 전문기업이다.

시세정보(2022/01/10 기준)

현재가(원)	36,25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4,967
발행주식수	13,703,160
52주 최고가(원)	54,500
52주 최저가(원)	31,200
외국인지분율	5.79%
주요주주	이동기 25.14%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8	3	-	(82)	(2,726.5)	(77)	(2,563.6)	-	-	1.3	(667)	4,223	N/A	8.1
2019	11	274.3	(151)	(1,337.4)	(144)	(1,269.8)	(29.7)	(28.5)	8.1	(1,102)	3,200	N/A	6.6
2020	25	118.9	(162)	(656.4)	(194)	(783.4)	(44.5)	(31.3)	73.3	(1,474)	3,344	N/A	15.0

기업경쟁력

순항 중인 기술개발 진척도

■ 확대 중인 파이프라인

- GalNAc-siRNA 플랫폼 기술의 전신 투여 및 표적치료제 개발에 대한 가능성 확보
- 간질환 치료제와 COVID-19 치료제로의 적응증 확장

■ 성공적으로 진행 중인 임상시험

- 비대흉터치료제(OLX101A) 미국과 국내 임상2상 진입

글로벌 기술이전 가속화

■ 안과질환 치료제 OLX301A/D

- 2019년 3월 프랑스 안과 전문기업 '떼아(Théa)'와 총 807억 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 체결, 2020년 10월 최대 약 9,138억 원 규모로 기술이전계약 확장 체결

■ GalNAc-asiRNA 플랫폼

- 2021년 10월 중국 '한소제약'과 GalNAc-asiRNA 플랫폼 기술 기반 최대 약 5,300억 원 규모의 기술이전계약 체결

핵심기술 및 취급 품목

핵심기술

■ RNA 간섭기술

- 기존 siRNA가 세포막 투과를 못하는 구조적 특성과 정상적인 세포를 방해하는 단점 극복

■ 자가전달 비대칭 siRNA(cp-asiRNA)기술

- 자가전달 기술로 전달체에 의한 독성 위험 제거
- 15-16nt의 짧은 비대칭 염기쌍을 도입하여 기존 기술의 부작용 개선

주력 제품

■ 올릭스 RNA 간섭기술 활용 신약 후보물질 발굴



ESG 현황

Environment

항목	현황
환경 정보 공개	■
환경 경영 조직 설치	■
환경 교육 수준	▣
환경 성과 평가체계 구축	■
온실가스 배출	▣
에너지, 용수 사용	▣
신재생 에너지	▣

▣: 양호 ■: 미흡 □: 확인불가

Social

항목	현황
인권보호 정책 보유	▣
여성/기간제 근로자 근무	▣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
공정거래/반부패 프로그램	■
소비자 안전 관련 인증	▣
정보보호 안전 관련 인증	■
사회공헌 프로그램	▣

▣: 양호 ■: 미흡 □: 확인불가

Governance

항목	현황
주주의결권 행사 지원제도	▣
중장기 배당정책 보유	■
이사회 내 사외이사 보유	▣
대표·이사회 독립성	■
감사위원회 운영	■
감사 업무 교육 실시	▣
지배구조 정보 공개	▣

▣: 양호 ■: 미흡 □: 확인불가

- > 당사는 임직원 대상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내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펼치는 등 에너지 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다만, 환경 성과 평가체계는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 여성 근로자가 근무 중이며, 인권보호 정책을 별도 보유하고 있고,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다만, 정보보호 안전 관련 인증은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 이사회 내 사외이사를 보유 중이며, 대표와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다만, 감사위원회는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본 ESG현황은 나이스평가정보㈜가 분석대상 기업으로 입수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으로, 분석 시점 및 기업의 참여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I. 기업현황

자체 개발 플랫폼 원천기술 기반 First-in-class 핵산치료제 개발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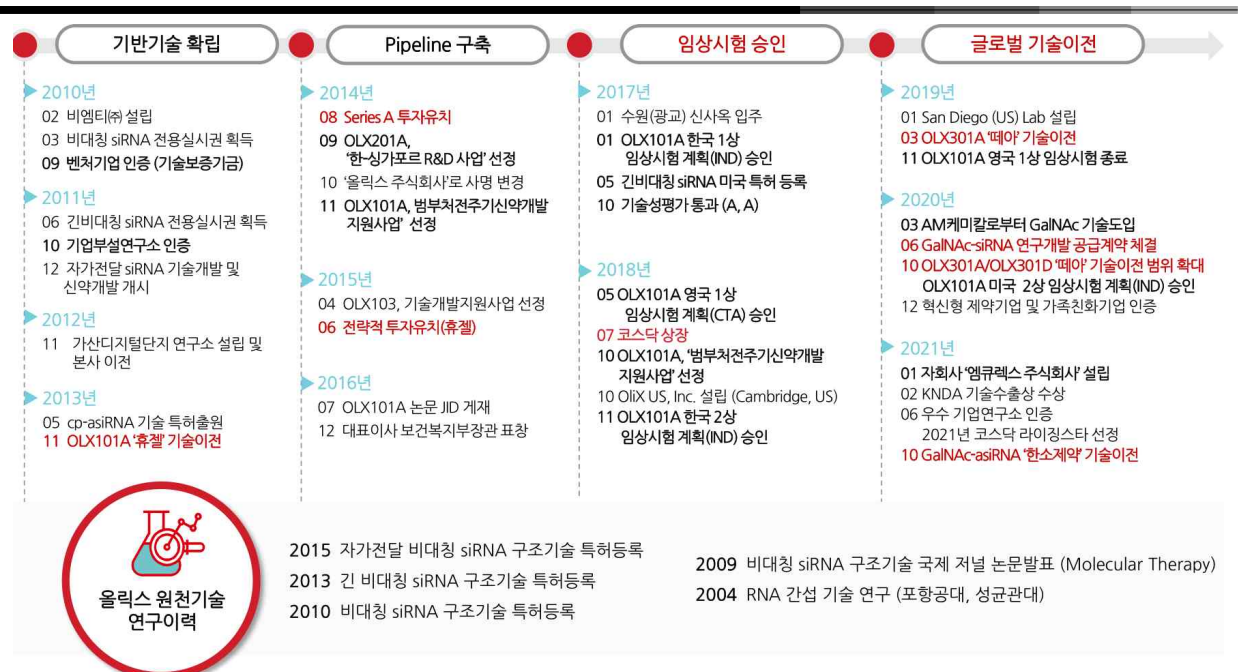
차세대 신약개발 기술인 핵산치료제 개발을 위하여 독자적으로 siRNA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왔으며, 관련 특허들의 전용 실시권을 확보하였다. 기존 신약기술로는 표적 불가능하였던 적응증을 대상으로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있으며, 글로벌 제약회사들로 기술이전을 성공시키고 있는 한편, 글로벌 임상개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혁신신약 개발 전문기업이다.

■ 개요

올릭스(이하 동사)는 2010년 2월 현 대표이사 이동기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설립 이후 현재 까지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18년 7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이다. 동사는 핵심기술인 비대칭 및 자가전달 RNA간섭(RNA interference, RNAi)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난치성 질환에 대응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파이프라인으로 비대흉터, 탈모, 건성 및 습성 황반변성, 망막하섬유화증 및 습성 황반변성, 간질환치료제 등 다양한 적응증에 대한 신약후보물질들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바이오기업 및 제약회사에 기술이전을 성공하고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2021년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본사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 4로 17(에이스광교타워 1)에 위치하며, 총 74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림 1. 성장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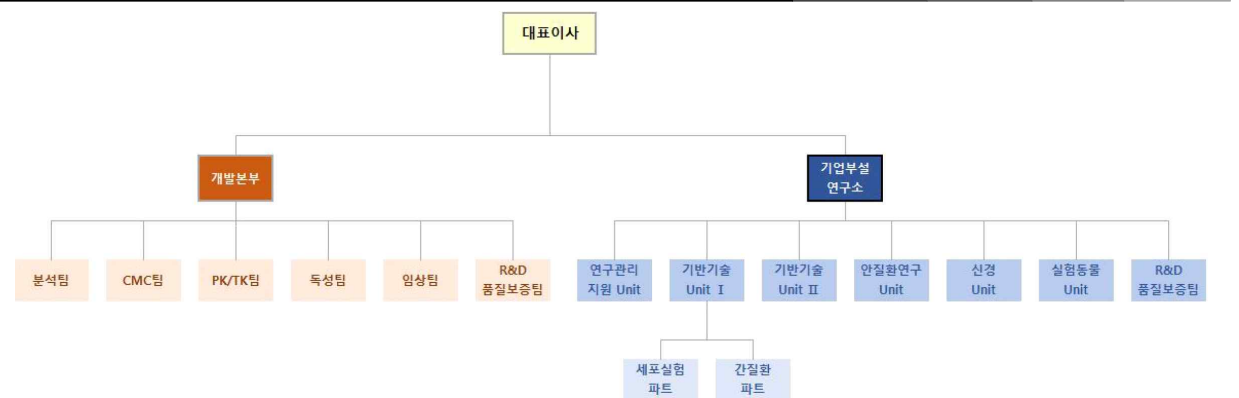
*출처: 동사 IR자료(2021)

■ 연구개발 활동

대표이사는 포항공과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에서 교수로서 연구 개발을 직접 진행한 이력이 있으며, 당시 기술들을 동사로 이전하여 이를 기반으로 현재의 플랫폼 원천기술이 완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동사는 2011년 10월 설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중심으로 우수한 연구개발 인프라 역량을 구축하고 있다. 연구개발 조직은 기업부설연구소 산하 6개팀, 개발본부 산하 6개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개발총괄 박신영 수석부사장과 연구총괄 홍선우 부사장이 각 영역에 대한 기술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 중이며, 관련 전공 박사학위자 17명과 석사학위자 31명을 포함한 총 52명의 연구인력이 상근 중이다.

그림 2. 연구소 조직 현황



*출처: 3분기 보고서(2021)

동사는 확보한 기업부설연구소와 우수한 연구인력을 기반으로 아래와 같은 다양한 정부지원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표 1. 최근 5년 정부지원 연구개발 수행 이력

주관기관	연구과제명	연구 기간	총사업비 (억 원)	관련 기술제품
보건복지부	검증된 섬유화 억제 유전자 조절 핵산 물질을 이용한 특발성 폐섬유화증 치료제 개발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	2014 - 2018	6.75	OLX201A
중소기업청	차세대 RNA 간섭 기술 기반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 개발 (기술혁신개발사업)	2015 - 2017	7.0	OLX103
범부처신약 개발사업단	자가전달 RNAi 유전자 조절 기술을 이용한 비대흉터치료제 OLX10010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영국 1상 임상시험 완료 및 2상 IND 승인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2018 - 2020	15.8	OLX101A
범부처신약 개발사업단	자가전달 RNAi 유전자 조절 기술을 이용한 난치성 비대흉터 억제 신약의 전임상 시험 및 IND신청/승인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2014 -2016	7.3	OLX101A

*출처: 3분기 보고서(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또한,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국내 특허청에 등록 및 공개한 지식재산권 현황은 아래와 같다. 특히, 2021년 7건의 특허가 등록된 사실로 미루어 최근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동 분야 후발 경쟁자들이 단시간에 제품과 기술을 모방하지 못하도록 기술진입장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지식재산권 현황

	등록	공개(출원)	비고
특허	31	63	2021년 등록: 7건
실용신안	-	-	
디자인	-	-	
상표	10	0	2021년 등록: 4건
합계	41	63	

*출처: 특허청 및 동사 제공(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파이프라인 현황

동사는 RNA 간섭 치료제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난치성 질환 대상 치료제를 개발 중이며, 총 13개의 파이프라인을 확보하였다. 연구개발 진행 단계가 가장 높은 파이프라인은 피부 비대흉터치료제인 OLX101A이며, 해당 파이프라인은 2013년 11월 휴젤에 기술이전 성공한 사례가 확인된다. 동사는 미국에서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며, 휴젤은 국내에서 임상 2상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안질환 치료제인 OLX301A와 OLX301D 파이프라인들은 프랑스 안과 전문기업 떼아에 기술이전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다.

그림 3. 파이프라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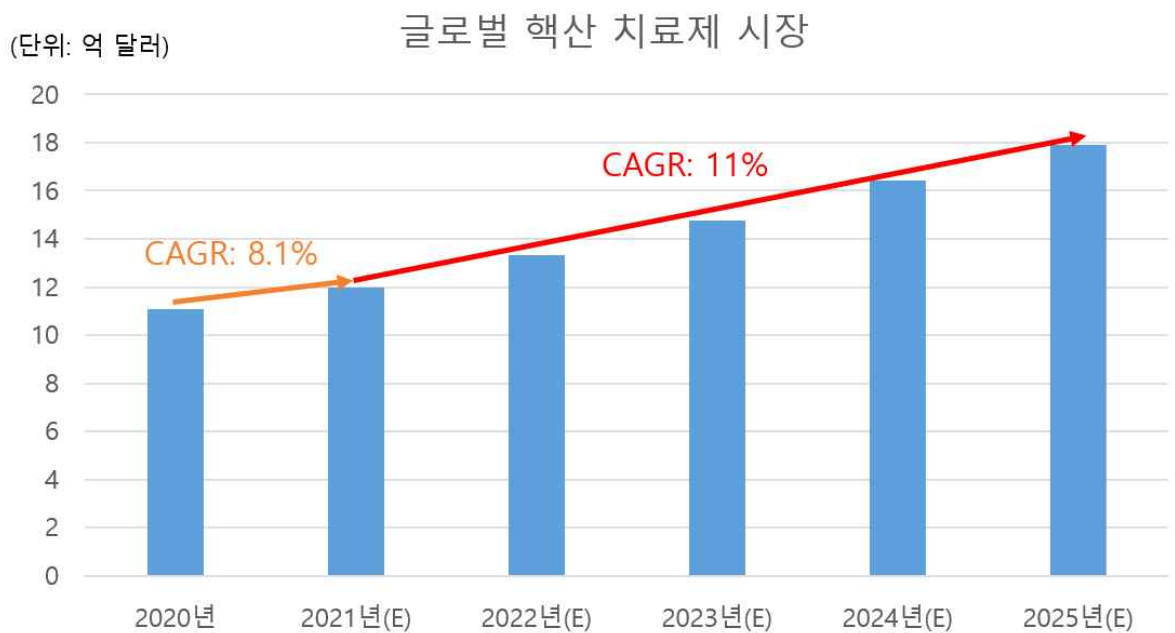
*출처: 동사 IR자료(2021)

■ 핵산치료제 시장의 가파른 성장

동사의 목표시장은 글로벌 핵산치료제 시장으로 파악된다. ResearchAndMarket에서 2021년 발간한 Antisense & RNAi Therapeutics Global Report 2021: COVID-19 Growth and Change to 2030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핵산치료제 시장은 2020년 11.1억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8.1% 증가하여 2021년 1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이후에는 COVID-19로부터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는 영향을 받아 연평균 성장률 11% 증가하여 2025년에는 17.9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4. 글로벌 핵산치료제 시장 규모 및 전망



*출처: ResearchAndMarket, Antisense & RNAi Therapeutics Global Report 2021: COVID-19 Growth and Change to 2030(2020),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표. 재무 분석

연구개발 지출로 적자 지속되나 자금 유치 꾸준

동사는 신약 연구개발 활동에 역량을 집중함에 따라 적자 수익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외부 투자자로부터 꾸준히 자금을 유치하고 있어 유동성 부담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플랫폼 기반의 신약개발 기술 이전을 통한 매출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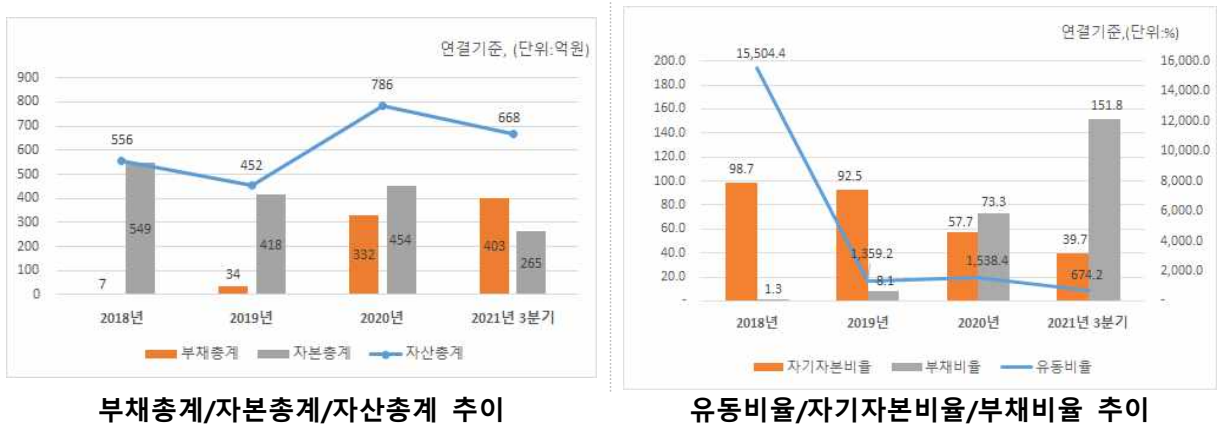
동사는 Thea와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에 따라 2020년 연결기준 전년 대비 118.9% 증가한 25억 원의 매출을 시현하였다. 매출은 전액 수출로 이루어졌으며, 기술이전수익이 12억 원, 연구용역매출이 13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최근 3개년 매출액의 경우 2018년 3억 원, 2019년 11억 원, 2020년 25억 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림 5. 동사 연간 및 3분기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 분기보고서(2021)

그림 6. 동사 연간 및 3분기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 분기보고서(2021)

■ 연구개발 집중에 따른 수익성 적자 지속

동사는 설립 이후 신약 연구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별도의 제품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2020년의 경우 기술이전수익과 연구용역매출이 25억 원 발생했으나, 연간 총 영업비용인

173억 원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이로 인해 당기 영업손실은 162억 원, 당기순손실은 194억 원을 기록하며 대규모 적자 상태가 이어졌다. 최근 3개년 수익성을 살펴보면 2018년 영업손실이 82억 원, 2019년 151억 원, 2020년 162억 원으로 손실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적자의 원인을 계정별로 분석해보면 경상연구개발비로 95억 원, 종업원 급여로 40억 원이 지출되어 당기 영업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 2021년도 손실 여전하나 유동성은 풍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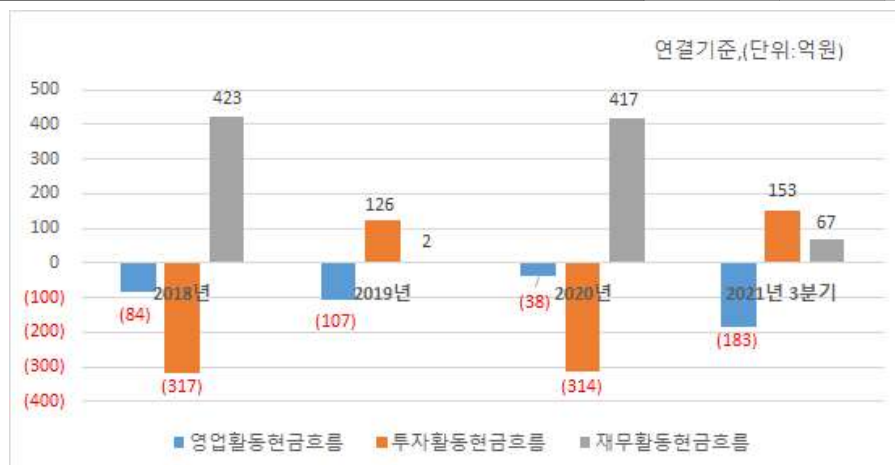
2021년 3분기 연결기준 누적 매출액은 28억 원(+128.0% YoY)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기술이전수익이 22억 원(+89.9% YoY)으로 매출 성장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연구개발비 급증으로 인해 영업손실은 190억 원, 분기순손실은 228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 규모가 더욱 확대된 바, 열위한 수익성이 지속되었다.

2021년 3분기 말 기준 부채비율은 151.8%, 자기자본비율 39.7%, 차입금의존도 25.1%로 전기 말 부채비율인 73.3%, 자기자본비율 57.7%, 차입금의존도 18.5% 대비 저하되었다. 순손실 지속으로 자기자본이 축소된 가운데 파생금융부채 증가로 부채 총계가 확대된 영향이다. 다만 분기 말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자산 잔액은 총 552억 원으로 부채 403억 원을 전액 상환하고도 충분한 수준이었으며, 유동비율의 경우 674.2%로 NICE 산업평균인 144.5% 대비 월등한 수준을 유지했다.

■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한 현금흐름 유지

최근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2018년이 -84억 원, 2019년 -107억 원, 2020년 -38억 원, 2021년 3분기 -183억 원으로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 부족한 운전자금은 대부분 유상증자 시행 및 전환사채 발행과 같은 재무활동을 통해 충당했다. 2018년부터 올해에 걸쳐 총 581억 원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졌고, 2020년에는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291억 원의 현금이 유입되었다. 이와 같이 외부로부터 자금을 대규모로 투자받게 되면 자본조달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당사는 투자자본을 상회하는 영업수익 창출을 통해 현금흐름의 개선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림 7. 동사 현금흐름의 변화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 분기보고서(2021)

Ⅲ.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RNA간섭 플랫폼 기술의 적응증 확대와 기술이전 확장

동사는 RNA간섭 플랫폼 기술을 cp-asiRNA와 GalNAc-asiRNA로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간 및 CNS, Oncology 질환으로 적응증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제약사들에 기술이전계약을 추가로 성공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자회사 엠큐렉스를 설립하여 핵산치료제 연구개발에 대한 전주기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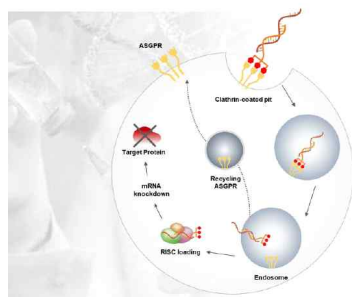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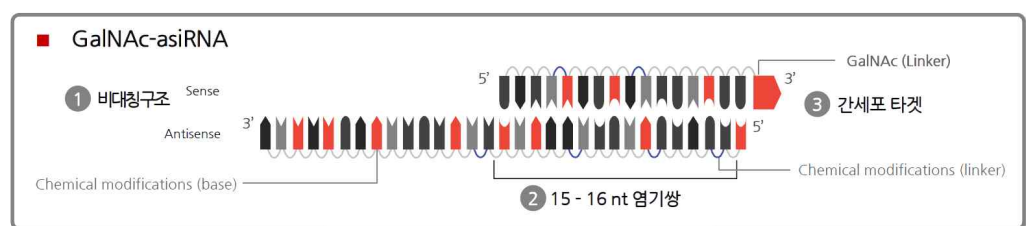
■ RNA간섭 플랫폼 기술 업그레이드

기존의 신약개발 기술들은 저분자화합물이나 항체를 기반으로 이미 생성된 단백질에 대해서만 작용한다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기술적 특성은 목표 단백질의 형태 또는 위치에 따라 약효물질이 작용하기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반면, 동사가 활용 중인 올리고 핵산 신약개발 기술은 단백질 생성 전 단계에 작용함으로써, 기존의 기술들이 공략하지 못하였던 질환에 대해서도 신약후보물질 도출이 가능한 것이 특징적이다.

동사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자가전달 비대칭 RNA간섭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피부, 안과, 폐 등 약 13개의 적응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GalNAc 기반 기술을 통해 간 전달 효율성이 높은 플랫폼 기술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이나 간 섬유화 등의 간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시도 중이다.

이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별 비임상시험 결과를 자체적으로 도출하고 있고 그 성과에 따른 임상시험에 대한 개발전략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있다.

그림 8. 최근 완성된 동사의 GalNAc-asiRNA 플랫폼 기술 개요



- 1. 간세포 특이적, 효율적 타겟
- 2. 긴 효력 유지기간
- 3. 피하 주사 방법으로 환자 친화적
- 4. 임상을 통해 검증된 기술

*출처: 동사 IR자료(2021)

■ **남성형탈모 치료제(OLX104C) 개발 진행 상황**

동사는 기존의 탈모 치료제로부터 발생하는 전신 부작용을 최소화한 국소 투여 탈모 치료제의 Best-in-class를 목표로 OLX104C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탈모 생쥐 모델에서 발모효력이 확인되었으며, 1회 투여로 3주 이상 효력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현재 탈모 치료제 시장에 진입하고자 준비 중인 경쟁사들 대비 우위성이 인정된다.

또한, 최근 탈모환자의 모근을 채취하여 연구한 결과 약효의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2022년 임상 진입을 목표로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9. 남성형탈모 치료제(OLX104C) 연구개발 결과



*출처: 동사 IR자료(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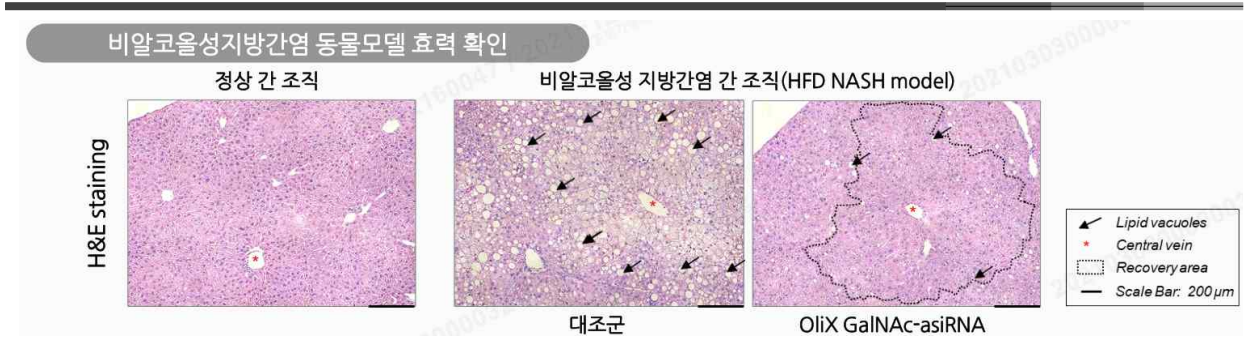
동사는 탈모 치료제 관련 기술개발을 가속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 남성형 탈모 표적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비대칭 siRNA 기술을 특허로 등록하여 기술을 보호하고 있다(특허명: 남성형 탈모 표적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비대칭 siRNA, 특허등록번호: 10-2321426).

■ **비알코올성지방간염 치료제(OLX702A) 개발 진행 상황**

비알코올성지방간염은 흔한 간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이 없다. 동사는 이 질환을 적응증으로 First-in-class 치료제를 개발하는 목표로 OLX702A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전장유전체상관분석(GWAS) 기법에 기반하여 발현을 억제하여야 하는 목표 염기서열의 발굴이 완료되었으며, GalNAc-asiRNA 플랫폼 기반 후보물질의 효능을 동물모델에서 입증하는데 성공하였다. 2023년 내 임상진입을 목표로 기술개발을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그림 10. 비알코올성지방간염 치료제(OLX702A) 연구개발 결과



*출처: 동사 IR자료(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글로벌 기술이전계약 확장 체결

동사는 2019년 3월 건성 및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인 OLX301A 프로그램을 개발 및 상용화 하기 위해 프랑스 안과 전문기업 ‘떼아’에 총 807억 원 규모의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20년 10월에는 OLX301A의 기술이전계약 범위를 확대하는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으며, 망막하 섬유화증 및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인 OLX301D에 대해서도 전 세계 범위의 기술이전계약이 체결되었다. 2020년 떼아와 추가로 체결된 계약규모는 최대 9,138억 원으로 확인된다.

그림 11. 동사와 떼아의 기술이전계약 개요

2019년 프랑스 안과 전문기업 ‘떼아(Théa)’에 총 807억 원 규모 기술이전 계약 체결 이후
 동사에 최대 9,138억 원 규모 기술이전 계약 확장 체결 (2020.10.06)



■ 2020년 기술이전 확정 계약 개요

프로그램	세부내용
OLX301A	기존 기술이전 계약 범위 확대 (기존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 미주 지역 추가 → 아시아태평양 지역 제외 전 세계)
OLX301D	전 세계 범위 기술이전 계약 (아시아태평양 지역 제외)
안과질환 프로그램 (2개)	향후 2년 이내 동일 조건의 기술이전 계약 권리 부여

■ 최대 계약규모 : EUR 668,000,000 (약 9,138억 원)

선금금 (OLX301A/D)	EUR 10,600,000 (약 145억 원) → 2019년 EUR 2,000,000 (약 27억 원) 포함
마일스톤 (OLX301A/D)	EUR 323,300,000 (약 4,422억 원)
옵션 계약금	EUR 200,000 (약 2억 7천만 원)
옵션 계약 규모	EUR 333,900,000 (약 4,567억 원)
로열티	순 매출액의 5% 또는 10% 비율
대상지역	전 세계 (아시아태평양 지역 제외)

*출처: 동사 IR자료(2021)

또한, 2020년 06월 아시아 최초 GalNAc-siRNA 플랫폼 기술 연구개발 공급계약을 유럽 소재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과 약 18억 원 규모로 체결하였다. 더불어, 2021년 10월에는 중국의 ‘한소제약’ 과 심혈관 및 대사질환 피로제 후보물질 대상으로 최대 약 5,300억 원 규모의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다.

■ ESG 활동 현황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기업이나 비즈니스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비재무적 요소이다. ESG 평가는 기업에게 지속 가능 경영의 동기를 유발하고 투자자에게는 사회적 책임투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국내 ESG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서스틴베스트, 대신경제연구소 등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12월 1일 국내 상황에 적합한 K-ESG 지표를 마련하여 표준화하기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분야별 진단 항목을 보면 정보공시(P) 분야는 ESG 정보공시 방식, ESG 정보공시 주기, ESG 정보공시 범위 등 5개 문항으로, 환경(E) 분야는 재생 원부자재 비율, 온실가스 배출량,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폐기물 재활용 비율, 환경 법규 제 위반 등 17개 문항으로 각각 구성됐다. 사회(S) 분야는 정규직 비율, 결사의 자유 보장, 여성 구성원 비율, 산업재해율, 협력사 ESG 지원 등 22개 문항으로, 지배구조(G) 분야는 이사회 내 ESG 안건 상정, 사외이사 비율,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분리, 배당정책 및 이행, 감사 기구 전문성 등 17개 문항으로 각각 이뤄졌다.

그림 12. ESG 등급 평가지표



*출처: 한국기업지배구조원(2021)

한국기업지배구조원(2021)은 ESG 평가등급을 공개하고 있으며, 각 등급은 S, A+, A, B+, B, C, D 7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제공하는 주요 제약 및 신약개발 기업들의 ESG 등급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 3.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제약 및 신약개발 기업 ESG 등급 현황

기업명	기업코드	ESG 등급	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년도
삼성바이오로직스	207945	A	A	A+	A	2021
삼성제약	001360	C	D	C	B	2021
레고켐바이오	141080	C	D	C	B+	2021
에이비엘바이오	298380	B	D	B	A	2021
인트론바이오	048530	C	C	C	B	2021
한올바이오파마	009420	B	D	B	B+	2021
종근당바이오	063160	B+	B+	A	B+	2021

*출처: 한국기업지배구조원(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서스틴베스트(2021)의 등급은 AA, A, BB, B, C, D, E 7등급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자산 규모별 등급을 구분하고 있다.

이 중 제약 및 신약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일부 코스닥 상장사의 등급이 평가되었으며, 당사는 전체 ESG 등급 B, 규모별 등급 BB로 평가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표 4. 서스틴베스트의 제약 및 신약개발 사업 영위업체 ESG 등급 현황

기업명	전체 ESG 등급	규모별 등급	자산 규모	평가년도
올릭스	B	BB	5천억 원 미만	2021
삼성바이오로직스	BB	B	2조 원 이상	2021
에이비엘바이오	B	BB	5천억 원 미만	2021
인트론바이오	B	BB	5천억 원 미만	2021

*출처: 서스틴베스트(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한편, 당사의 2021년 3분기 공시자료에 따르면, 총 74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여성 근로자가 47명(전체 63.51%), 기간제 근로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5. 여성/기간제 근로자 근무 현황

단위: 명

사업부문	성별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총합
연구/관리	남	27	0	27
	여	47	0	47
합계		74	0	74

*출처: 당사 반기보고서(2021),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또한, 동사는 사내 임직원 대상 환경교육과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권 보유 정책과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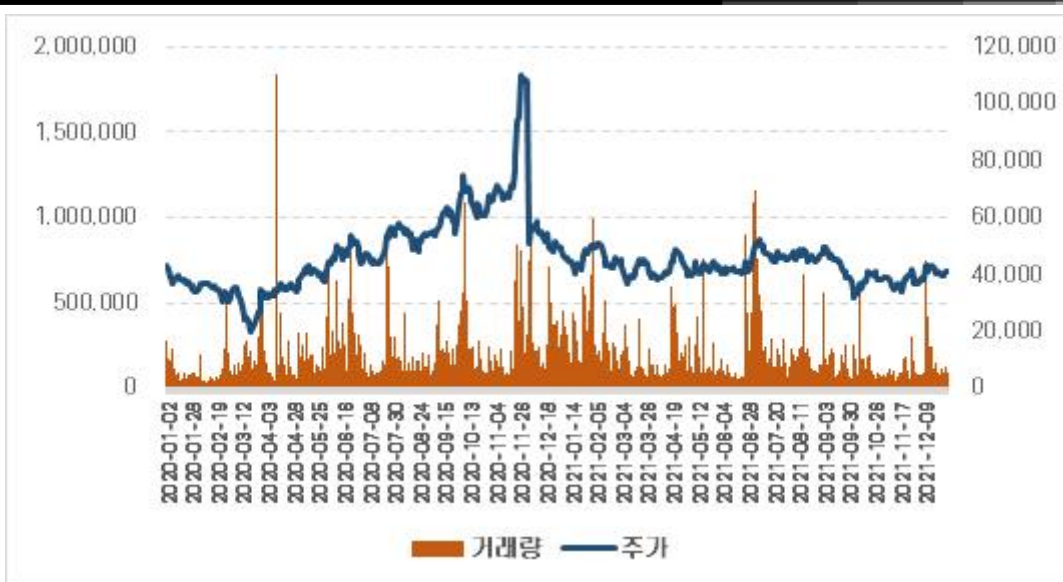
동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 4명과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으로 총 6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 공시하는 등 이사회 운영규정을 두어 준수하고 있다. 또한, 법규에 의거 이사회 추천 및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함으로써 이사 선정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지배구조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관심이 제고되고 투자자의 관점에서 투자 적합 기준이 아니라, 모든 구성요소가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노력의 측정 지표로서 ESG 기준 충족이 필요하다.

■ 증권사 투자 의견

작성기관	투자 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NR	NR	2021-11-26
이베스트 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GalNAc 도입 후 2021년 10월 GalNAc-asiRNA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첫 계약을 성사 이것은 올릭스의 플랫폼의 가치를 증명해주는 첫 계약 'GalNAc-asiRNA' 완전체로서 '빅딜'을 기다리고 있는 올릭스의 가치가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판단 		

■ 시장 정보(주가 및 거래량)



*출처: Kisvalue(2021.12)